

시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오산시가 있기까지

오산시청 |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글 윤혜원 사진 김재이

오산시청의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팀,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 중대재해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총 4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팀은 다양한 직무가 함께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를 책임진다. 끈끈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오산시청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오산 시민의 안전 수호자, 중대재해팀

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 2년 차 신생 부서다. 주로 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총괄하고,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하수처리장, 배수지, 폐기물 처리장 등 오산시에 있는 60여 개 사업장의 시설물 점검과 보수,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오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야간에 강한 호우가 예정되어 있던 인터뷰 당일, 안전정책과의 각 팀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실시간 상황실에서 전국의 상황실과 피해 상황 등을 주고받으며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낸 것. 중대재해팀 역시 안전정책과로서 정자교 붕괴 등 시설물 파괴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해 상황 관리에 동참해야 했다. 유창현 팀장은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중대재해팀 역시 책임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제가 10년 전에 근무했을 때는 방재팀에서 모든 재난재해업무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4개의 팀으로 세분화되었지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재난과 중대재해, 그리고 자연재난과 중대재해도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중대재해팀은 다양한 재해 위험 중에서도 특히 작업관련성 질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주목했다. 사업장이 다양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알아보고자 대한산업보건협회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이 일터에 가져온 변화

1,400여 명의 직원이 24만 명에 달하는 오산 시민을 관리하는 오산시청.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 및 작업분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등을 실시했다. 컨설팅 이후, 이정혜 보건관리자는 직원들과 한 달에 한 번 건강 상담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직원들이 상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참여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가 오산시청에 입사했을 때는 안전관리자가 없어 교육에 신경 쓰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사업장별로 업무가 다양한 만큼 노동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파악하려고 노력했죠. 숲보다 나무를 보는 데 집중했달까요. 이번 컨설팅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안전한 일터가 되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 등으로 삶의 질은 물론 작업의 질도 떨어트려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야기된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기에, 현장에서



“ 이번 컨설팅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안전한 일터가 되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현장에 나가 보니 작업자분들이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적극적인 교육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죠. 앞으로 준비한 계획을 토대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매년 국내에서 일어나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질병사망자는 1,200명 수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추세다. 사무 직은 대체로 과중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지만, 현장 직은 넓은 사업장 특성상 위험·유해요인 파악이 쉽지 않고, 산재위험이 높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분석한 2022년도 공무원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274명)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중대재해팀은 현업 업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후 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갖췄다. 또, 의료진이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중대재해의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유창현 팀장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도 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설물을 관리해도 결국 재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경험치가 쌓이면서 재해를 100% 예방하는 건 어렵다고 느꼈죠. 물론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안전한 환경이 갖추어졌지만, 아직 건설 현장처럼 위험요소가 많은 사업장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더 이상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대재해팀이지만, 이들이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는 제조 산업장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공공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중대재해팀을 꾸리고, 한층 체계적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의 업무와 법이 공무원의 현장에 맞게 꼭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점점 발전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오산시를 ‘재난 없는 안전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대재해팀. 안전정책과의 일원으로서 탄탄히 내실을 다지며 오산 시민의 안전하고 밝은 앞날을 그려나가고 있다. 🍃

Mini Interview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오산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강래출 과장



Q. 오산시청 중대재해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산시청 중대재해팀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 구축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뛰어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공무원 및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현재 안전정책과와 중대재해팀의 업무 효율화가 잘되어 있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 시민이 오산시를 믿고,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산시의 안전이 곧 자부심입니다”

이제구 오산시청 시민안전국장

오산시청 시민안전국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비롯해 시민에게 안전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오산시가 되기까지

‘오산의 시민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제구 시민안전국장. 오산시청에 근무한 지 약 35년이 된 그는 ‘안전’을 거듭 강조하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안전행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 안전이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하지만, 오산시청은 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노심초사하긴 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오산시는 재난재해 책임 기관으로서 재해 발생 시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와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폭우로 인해 기흥저수지의 침수 위험이 컸을 때도 이 덕분에 발 빠르게 주민대피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구 시민안전국장은 “지휘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체계화된 공조 시스템과 시민의 참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오산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인 오색시장대를 말할 수 있다. 오색시장장은 100년 된 전통시장인 만큼 화재에 취약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오산시는 화재 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대응 태세를 더욱 갖추기 위한 훈련으로,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등 다양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누전으로 인해 소방차가 30대가 출동할 정도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용소방대인 오색시장대와 상인들이 합심하여 초기 진압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인재를 막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오산시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시민 여러분들을 오산시의 자부심이라 생각하고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험실 안전보건 PROTOCOLS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세요!!



정리

실험을 완료한 후
작업 공간과 장비를
청소하세요.
손을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관리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을
준수하세요.



MSDS

MSDS를 비치하고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합니다.
항상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Safety First

소화기, 비상사위장치,
눈 세척용기, 긴급약품,
화재용 담요, 후드 등은
월별로 주기 점검하세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도 하지 마세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집중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실험을 하고, 실험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유리제품은 조심스럽게

실험실 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나는 사고는 찰림과 베임
사고입니다.